

서양에서 불교 성장은... '낙관적'

뉴욕타임즈, 가필드 교수의 불교관 인터뷰 게재

서양에서 불교는 이제 '이국적인 종교'라는 허울을 벗은 듯하다. '토종' 서양인이라도 도심의 불교 사원이나 명상센터의 문을 두드리는데 망설이지 않고, 글로벌 다국적 기업 역시 직원 교양 프로그램으로 명상을 적극 고려하고 있으니 말이다.

과연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이에 대한 해답은 최근 <뉴욕타임즈> 지와 인터뷰를 한 제이 가필드(Jay Garfield · Yale-NUS College) 교수의 "사상제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서양인의 정신세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고, 서양인들은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말에서 찾을 수 있다.

(뉴욕타임즈) 지는 현재 종교를 주제로 관련 학자들과의 기획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으며, 다섯 번째 기획연재로 불교철학을 전공한 제이 가필드 교수의 인터뷰를 지면에 게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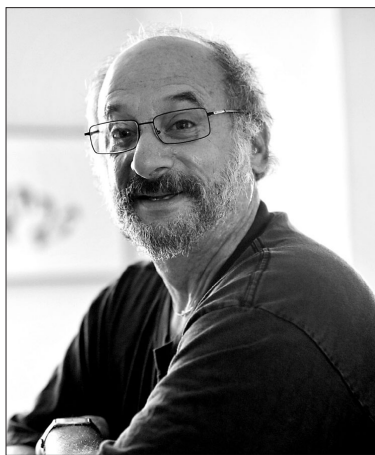
이번 인터뷰에서 "서양인에게 사상제는 새로운 가치관"이라고 주목한 가필드 교수는 "불교를 접한 서양인들은 고집불도라는 사상제에 힘입어, 내게만 물었던 형이상학적 철학관에서 벗어나 주변과의 조화 속에서 나를 바라보기 시작했는데, 그 시점이 바로 불교 서양에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때"라고 말했다.

또한 "불법승 삼보 역시 서양인에게 '소통하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도 덧붙인 가필드 교수는 "불'과 '승'은 서양인들에게 영적인 커뮤니티를, '법'은 영적인 인생관의 전형을 보여주기 위해 충실했다"고 설명했다.

가필드 교수는 서양에서 불교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도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먼저 아브라함 전통의 종교관 즉, 유



뉴욕타임즈 지(사진 왼쪽)와 인터뷰한 제이 가필드 예일대 교수.



일신 사상이다. 이 사상은 특히 종교철학자들이 불교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 서양에서 태동한 종교철학은 유일신 사상에 근거한 연구 방법론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데, 그 방법론은 불교를 올바로 연구하는데 발목을 잡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치 불교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눈을 멀게 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한 가필드 교수는 "그러나 오래지 않아 불교는 이 역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며 "불교의 전래 과정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주변 문화와의 조화인데, 이 점이 불교철학계의 연구 풍토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예단했다.

종교철학의 기본 프레임인 아브라함 전통(유일신)은 '신앙의 융합'을 금기시 하지만, 이는 세계 종교의 일반적인 흐름을 거스르고 있다는 점에서 서양 종교철학계의 연구 방법론 변화를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불교의 경우, 그 흐름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일본에서는 불교와 신도, 네팔에서는 불교와 힌두교, 중국에서는 불교, 유교, 도교 등이 서로의 신앙을 공유하며 조화롭게 공존하고 있다.

<뉴욕타임즈> 지는 "이는 서양의 철학자 중에서 흄, 쇼펜하우어, 니체와 종교인 중에서 토마스 머튼 등이 불교 교리에 깊은 관심을 보인 이유이기도 하다"는 가필드 교수의 말을 인용하고, "더 긍정적으로, 불교의 전통은 서양인의 삶에서 고를 여의고 나아가 "자신을 보고, 우리를 격려" 하는 이해를 가르치며 공존과 배려의 가치를 심어주고 있다"며 "이는 불교가 서양의 문화와 더욱 긴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덕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뉴욕타임즈> 지는 "불교, 특히 대승불교는 낙천적인 종교"라는 가필드 교수의 말에 주목하고 "이 점 역시 서양인에게 불교를 강하게 어필하는 단초"라며 "미래의 삶을 믿고 나아가면 어떤 각성의 단계에 다다를 수 있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서양에서 종교로서의 불교가 성공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게 하는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오종욱 편집위원



여성 이슬람교도와 결혼한 미얀마 남성이 가족의 안전을 위해 이슬람교도 난민 캠프에서 살고 있다. 사진은 이슬람교도 난민캠프 모습.

"가족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여성 이슬람교도와 결혼한 미얀마 불자 남성 미얀마 ID 카드를 든 채, 난민 캠프에서 전전

미얀마의 종교 편견이 한 사람의 운명까지도 왜곡시키고 있다고 <Alaska Dispatch> 지가 13일 보도했다.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미얀마 라킨(Rakhine) 주에서 살고 있는 모하메드 씨드(Mohammed Saed) 씨를 조명해 <Alaska Dispatch> 지는 "미얀마의 남성 불교도로서 여성 이슬람교도와 결혼한 그는 이슬람교도 가족과 함께 난민 캠프에 살고 있지만, 가족의 생필품을 살기 위해서는 아웅 레이 툰(Aung Lay Tun)이라는 이름이 적힌 미얀마 ID 카드(주민등록증)의 일종을 들고 미얀마 시장을 찾는다"고 전했다.

<Alaska Dispatch> 지에 따르면 그가 여성 이슬람교도와 결혼 사실이 알려지면 '살해' 위협까지도 감수해야 한다. 그래서 모하메드 씨드의 장보기는 시장 분위기와는 다르게 '은밀'하고 '조용'하다.

"5년 전까지 불자였다"고 말한 모하메드 씨드 씨는 "그러나 사랑하는 여성이 이슬람교도이고 개종해야만 결혼할 수 있어서 개종을 결심했고, 가족의 안전을 위해 그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않았다"며 "지금은 가족의 안전을 위해 이슬람교도 난민 캠프에서 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미얀마에서 이슬람교도와 결혼은 금지되어 있다. 급진적인 불교지도자 아신 위라투(Ashin Wirathu) 스님이 지난해 백만인 서명운동을 전개

해 이슬람교도와 결혼을 제한하는 법령을 제정했기 때문이다. 법을 어길 경우, 10년 징역, 재산 몰수 등의 처벌을 받는다.

<Alaska Dispatch> 지는 "과거 미얀마에서는 불교와 이슬람교는 평화롭게 공존했다"는 모하메드 씨드 씨의 말을 인용하고, "그는 가족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길 희망하고 있지만, 미얀마의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며 "미얀마 정부가 4%에 불과한 이슬람교도를 추방할 뜻을 묵시적으로 가지고 있어, 미얀마에서 이슬람교도의 삶을 위협에 더욱 노출될 것"이라고 전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日, 백제계 행기스님 유적에 한글병기 간판

생가와 건립 사찰 등에 안내판 설치

일본 오사카(大阪)부 사카이시가 7~8세기 일본 민중불교 지도자로 활약한 행기(行基) 스님(668~749)이 백제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적은 한글병기 안내판을 주요 사적지에 설치했다고 오사카 한국총영사관이 5월 10일 밝혔다.

사카이시는 최근 행기 스님의 생가인 에바라지(家原寺), 스님이 세운 사찰인 오노노지(大野寺)와 흙담(土塔) 등에 행기 스님이 백제에서 건너 온 왕인 박사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한글 및 일본어로 소개한 안내판을 설치했다.

행기 스님은 일본에서는 '보살' 로까지 추앙받는 대표적인 민중불교 지도자다. 15세 출가해 20년을 수행한 행기 스님은 표교활동에 자신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다. 교각과 제방, 교아원, 도량 등 사회 제반 시설을 건립해 민중을 도왔고 스님을 좇아 제자가 된 사람들이 수 천명에 이르렀다.

행기 스님의 세력이 두려웠던 당시 야마토 정권은 행기 스님을 옥에 가두는 등 탄압했으나, 그의 대중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나라 도다이지(東大寺) 대불 기공을 권선하는 중책을 행기 스님에게 부탁했고, 대불 조성 불사는 원만히 회향하게 된다. 이런 공로로 행기 스님은 대중성에 지위까지 올랐다.

현재 행기 스님의 고향에는 스님에 대한 박물관이 있으며 도다이지에 가기 위한 기차역 광장에는 행기 스님을 기리기 위한 동상도 세워져 있다.



도다이지에 가기 위한 기차역에 세워진 행기 스님의 동상. 행기 스님은 백제 후손이다.

한편, 이현주 주 오사카 총영사는 지난 8일 다케야마 오사미(竹山修身) 사카이 시장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 같은 사카이시의 조치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명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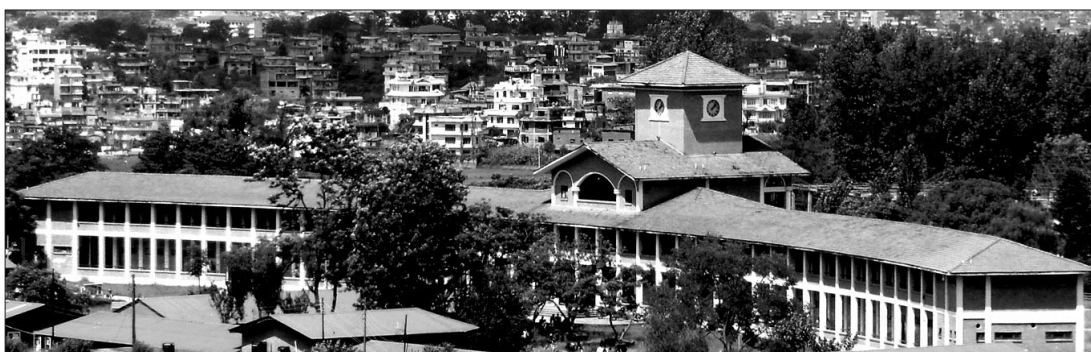
"누가 네팔불교 연구를 주도하고 있는가?"

바드라 렐타 교수, "네팔불교 연구, 서양 학자들이 주도"

네पाल의 공공미디어 <Republica>가 5월 14일 네팔의 한 불교학자의 자성의 목소리를 전해 주목된다. <Republica>는 "80년대를 기점으로 네팔불교 연구의 주류가 독일, 영국, 미국 등 서양으로 옮겨지기 시작했고, 이제는 네팔의 불교학자들이 서양의 불교학자들에게 배우고 있다"는 바드라 렐타(Bhadra Ratna Tribhuvan University) 교수의 말을 전했다.

바드라 렐타 교수에 따르면, 80년대 이전에는 서양의 불교학자들이 네팔불교를 배우기 위해 네팔을 찾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서양의 불교학자들은 자신들의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네팔의 불교학자들에게 강연하기 위해 이곳을 방문하고 있다.

즉, 서양 불교학자들의 연구의 깊이가 이미 네팔 불교학자를 따라잡았고, 이제 자신의 사유로 네팔의



최근 네팔의 불교학 전공자들은 서양의 불교학자들에게 배우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사진은 네팔 바드라렐타 대학 전경.

불교학자와 학도를 이끄는 상황까지 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양 불교학자들의 영향은 네팔 불교학도의 연구 방향으로도 가늠할 수 있다"고 설명한 바드라 렐타 교수는 "최근 네팔불교의 연구는 서양 불교학계의 연구 지원금 혜택이 있는 '불교와 히말라야', '불교와 평화' 등의 분야에 집중되고 있다."며 "이는 불교교리·역사·문화 등 네팔불교학의

깊을 더하는 연구가 소외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설명했다.

<Republica>는 "따라서 네팔 불교학계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는 바드라 렐타 교수의 말을 인용, "장학제도 개선, 불교 도서관 건립, 연구기관 지원 등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주관 22쇄의 스테디 셀러!!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삶은 고가 아니다

삶은 고가 아니다

길을 묻는 이들에게 전하는 대행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그 불성을 이룸에 한마음이러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보다도 바랄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쇠를 못만든 말입니까? 마음이 곧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생활 속의 불법을 설하는 대행스님 법어집 -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www.hyunbulshop.com

▶ 허공을 걷는 길 대행스님 법문 전집(법회법 출간) ▶ 한마음선원 대행스님의 구도기·법어·개송·선화의 집대성 [품절]
▶ 신명요전(법요집) 기본적이며 유용한 관법의 기초를 담은 법어집 ▶ 대행스님의 뜻으로 풀 금강경(독송용)
▶ 만 가지 꽃이 피고 만 가지 열매 익어 A Thousand Hands of Compassion (Korean/English) 대행스님의 뜻으로 쓴 전수서(한글/영어)

값 10,000원 / A5 / 287쪽

* 구입문의 : 현대불교 헌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확인천도 영능력개발과정 전수자모집

전수내용

- ① 그 자리에서 환자의 몸을 통한 빙의 일반병 확인 하는 방법
- ② 환자의 몸에서 나오는 영가의 대화법 (6하원칙 대화법)
- ③ 사주와 전생의 수행능력과 빙의 영혼 구별법
- ④ 고혈압, 당뇨, 아토피, 심혈관질환, 다이어트의 치유법, 영적인 질환은冷氣(냉기) (스님, 신도분, 종교인,누구나 환자 상담시 2개월 치유프로그램 시행)
- ⑤ 몸, 마음, 정신, 영혼의 작용력 이해, 영가 빛 천도법
- ⑥ 과학적인 오오리장을 통한 빙의 수준의 이해
 - ◆ 저급빙의 - 육체적인 질병을 통한 빙의 영혼의 고통 호소
 - ◆ 중급빙의 - 마음적인 갈등과 영적인 갈등을 통한 방향과 혼돈
 - ◆ 고급빙의 - 삶의 목적과 영혼의 목적 의식에 따른 방향
- ⑦ 인간의 속마음을 읽는법 (인체전기장을 통한 과학적인 방법)
 - ◆ 수강자 - 스님, 대체의학연구자, 종교인, 영적인 현상을 이해 하고자 하는 분, 삶의 목적의식을 찾고자 하는 분, 깨달음의 이해,문화의 법이해 이론, 책자(전수용) 실습 - 강의는 수강자와 협의 후 결정
- ⑧ 효소질질 : 사찰내의 난치병,빙의 환자치유, 목적 설치 상담

■ 보시금은 영혼 확인 상담비 : 심담원 전수료는 협의

풍운 창장

인체전기파동원 (고덕선원)

문의전화 : 010-9242-5259
오시는길 : 청주시 상당구 원봉로 93 642-21